

# 평화당 전남 군수후보 3명 추가 확정

## 고흥 송귀근·강진 광영체·구례 박인환

민주평화당 전남지역 군수후보 3명이 추가 확정됐다.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는 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남도당이 심의한 전남지역 제2차 후보자 25명에 대한 공천 확정을 승인했다. 확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고흥군수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강진군수 광영체 전남도의원, 구례군수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의장 등 3명이다. 광역의원은 강진 1·2선거구, 광양 1·3선거구, 나주 1선거구, 여수 2·3·4·6선거구 등 총 9명이다. 기초의원은 강진 가선선거구, 고흥 가·나·라 선거구, 광양 나·다 선

거구, 여수 나·다·사·아 선거구 등 13명이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2일 1차 공천에서 목포시장 박홍률 현 시장, 해남군수 명현관 전남도의원, 함평군수 이윤행 함평군의회 의장, 화순군수 임호경 전 군수를 기초단체장 후보로 확정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민주당 독주를 견제할 당은 오로지 평화당뿐”이라며 “지방선거 라인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당은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경선보다는 후보간 합의를 통해 단수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은

하계되면 후보간 갈등으로 힘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또 영암·무안·지역위원장에게 이윤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곳에서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평화당 공천이 유력한 것으로 지역정서는 관측하고 있다. 이용주 평화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전남도당이 전국에서 가장 신속하고 모범적으로 공천심의를 확정했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는 후보들을 영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 평화당 토론회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민주평화당 토론회'에서 조배숙 대표(오른쪽 네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의회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시민토론회 연다

### 본회의 상정 불구 의결 못해... 찬반 표결·다음 회기 미루기로

광주시의회가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의 재의(再議)에 앞서 시민토론회 등을 거치기로 했다. 9일 광주시의회는 시가 재의를 요구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을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대신, 조만간 토론회와 시의회 차원의 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16일 찬반 표결을 하거나 다음 회기로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늦어도 6월 임시회에서는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시의 재의 요구

가 들어오면 최대 10차례에 걸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10차례의 본회의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관련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이번 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은 지방선거에서 시의원들이 바뀌게 되므로 본회의 상정 기회가 4차례밖에 없다. 조례안이 재의결돼 제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의회 찬성 가결로 조례안이 재의결되면 5일 이내에 광주시가 공표하고, 단체장이 공표하지 않으면 의회 의장이 공표한

다. 광주시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찬반 대립은 이날도 계속됐다. 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폐지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은 중복감사를 부를 뿐만 아니라 감사 독립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일반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이다”며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6·13 선거 현상

###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김명진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해야”



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김기식 금감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행태는 촛불정신에 위배되는 특권행위로 자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금융감독업무의 수장이 도덕적 하자가 있어서는 공신력도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피감기관 돈으로 편법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국정감사에서 공사 직원들이 기업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데 대해 ‘명백한 로비나 접대’라며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이다”라고 주장했다.

#### 송갑석,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첫 공약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송 후보는 “대한민국 서민경제가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이며, 대기업 및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 대표소송제도 개선 및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의무화 사항에 대한 문제인 정부 공약을 법제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시 교육감 후보

#### 최영태 “교육감 직속 광주교육회의 설립”



최영태(64·전남대 교수)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6개월 이내 교육감 직속으로 ‘광주교육회의’를 설립해 교육감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결정이나 영향으로 광주교육의 주요 방향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 동안 광주교육의 대표적 문제점은 실력 광주의 전통을 허물기만 했을 뿐 새로운 좌표를 수립하는 데 실패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전문가, 교장단 대표, 교원단체 대표, 학부모 대표, 대학입시 책임자, 광주시·시의회 파견인사 등으로 구성할 광주교육회의와 함께 광주교육 비전 및 중장기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박혜자 “범죄로 취득한 MB 수익 환수해야”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지난 보수정권 9년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대통령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했던 9년이었다”면서 “과연 MB가 권력을 통해 챙긴 것이 110억 뇌물과 349억 횡령, 31억 탈세뿐이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검찰수사 결과, MB는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 횡령, 직권남용 등 16개 혐의로 구속수감됐다”면서 “MB의 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것은 국가권력을 자신의 사기행각을 덮는데 사용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MB가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모조리 환수해야 하며 또한 가족과 일가친척들의 명의로 빼돌린 부정한 재산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 풀뿌리 민주주의 ‘달빛동맹’

### 민주 강수훈 광주 동구청장 후보

### 서재현 대구 동구청장 후보 연대

호남과 영남의 ‘정치 1번지’ 광주 동구와 대구 동구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가 정책을 공유하는 ‘달빛 동맹’을 맺었다. 달빛 동맹은 달구별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에서 따온 이름으로, 광주시와 대구시의 활발한 교류를 ‘달빛 동맹’이라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수훈(오른쪽)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와 서재현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광주시의회에서 정책 연대 기자회견을 했다. 강 후보는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립을 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이지만, 이것이 지역 간의 분리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연대를 기



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는 “다른 지역과의 정책 공유는 그동안 고립되고 낙후됐던 대구 발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을 섬겨야 하는 지자체에게 정책이란 후보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돌봄이웃 초등생 구강질환 관리

광주시가 치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돌봄이웃(저소득층)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꿈나무 건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동구 150명, 서구 440명, 남구 350명, 북구 530명, 광산구 530명 등 5개 자치구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꿈나무 건치 프로젝트’는 광주시가 지난 2014

년부터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등록된 아동에 대해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충치치료 등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4년간 5000여 명의 돌봄이웃 아동에게 5개 보건소와 547개 치과 병·의원에서 맞춤형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1인당 최대 30여만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누렸다. 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97.1%, 보호자의 98.6%, 참여 의료기관의 97.8%가 만족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윤현희기자 chadol@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물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